

전남 학생들 ‘삶’ 성찰하는 광장토론 눈길

도교육청 ‘1회 인문토론 한마당’ 성료
‘책으로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 주제
중·고 175명 인문학적 사고력 등 발휘

“책으로 시작된 토론이지만 결국 나와 세상을 돌아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남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삶’을 성찰하는 광장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관에서 ‘제1회 전남 청소년 인문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책으로 꿈꾸는 정의로운 세상, 청춘의 외침’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한마당에는 도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5명이 참여해 책을 매개로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전남 청소년 인문토론 한마당’은 그동안 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독서인문교육의 결실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관에서 ‘제1회 전남 청소년 인문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행사 준비를 위해 전남 교사들로 구성된 5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단(24명)을 운영했으며, 부산 인디고서원의 ‘정세정세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상과 소통하다’팀과 협업체 전남만의 독서 인문토론 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초·중·고 연계 독서수업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고 타인과 사유를 나누는 ‘광장 토론’ 형태로 운영됐다.

단순한 말하기 중심의 토론을 넘어 깊이 있는 독서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사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독서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사고력·비판적 사고력·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번에 펼쳐진 ‘청소년 인문토론’은 경쟁적 토론이 아닌, 삶의 고찰로서의 인문토론 방식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참가 학생들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교육청은 제1회 전남 청소년 인문토론 한마당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전남의 독서인문교육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인문학적 토론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길 글로벌미래교육과장은 “이번 한마당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성장하는 전남형 인문교육의 방향을 보여준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시-하늘정원 ‘반려동물 장례문화’ 협약

광주시는 “최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서 지역 반려동물 장묘업체인 ㈜하늘정원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민은 ㈜하늘정원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장례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

층·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시민은 50%까지 비용이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반려동물 사망 후 업체 예약 때 광주시민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과 시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개발공사,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남개발공사는 20일 장흥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사례와 실무 중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개발공사가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활동의 일환이다. 지역 학생들에게 전남개발공사의 주요 사업과 건설현장 감독 업무 실무 경험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과 건설현장의 실제 업무 내용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역 산업과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인재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누스커피 연계 ‘농심천심운동’

농협 곡성군지부는 20일 “지역 카페 ‘누스커피’와 함께 추진 중인 ‘농심천심운동’ 홍보 및 일회용품 저감 캠페인이 지역사회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곡성군지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누스커피의 컵홀더와 음료 캐리어에 농심천심 슬로건과 엠블럼이 새겨진 디자인을 추가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음료 캐리어를 반납한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친환경 보상 캠페인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이진우 누스커피 대표는 “농협과 지역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함께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방현용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농심천심운동과 일회용품 저감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거양이앤씨, ‘나눔명문기업 광양 1호’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20일 “(주)거양이앤씨가 1억원을 기부하며 ‘광양 1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사랑의열매에 1억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동일 금액을 약정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날 광양시청 시청실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우광일 거양이앤씨 대표이사과 허영호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정인화 광양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우 대표이사는 2020년 광양시 2호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난해 2월 (사)전남척수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 4천700만원 상당의 ‘Dream 리프트 승합차’를 지원 기탁



는 등 꾸준한 나눔을 이어왔다. 올해도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이어가며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확고히 했다.

우광일 거양이앤씨 대표이사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송창영 광주대 교수, 고려인마을 감사장받아



광주대학교는 20일 “송창영(사진) 건축학부 교수가 광주 광산구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제13회 고려인의 날 2025 고려인 한마당’ 행사에서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주관하고 광산구청이 후원했으며, 고려인 동포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송 교수는 수년간 20여차례에 걸쳐 기부와 후원을 이어오며 고려인 동포사회의 정착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창영 교수는 “고려인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고려인의 후손들에게 보답해야 할 때이며 그들의 삶이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동신대, 장성에 첫 ‘온마을 리빙랩’ 개소

동신대학교는 20일 “안전·돌봄 실험을 본격화하기 위해 장성에 ‘제1호 온마을GUARD 리빙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장성 흥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으며 이동휘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장, 강대익 장성 황룡면장, 강성우 흥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 동신대 시군동반성장협업센터와 흥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는 리빙랩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동신대는 학문적·정책적 지원을 하며, 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참여와 현장 운영을 맡아 지역 현안 해결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박현진 기자

본사손님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동문·동창회

●광주대동고총동창회(회장 양승환) 제23회 한마당축제=26일(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매월동 모교 운동장.

결혼

▲이해영·전민자씨 장남 로아군, 김민중(광주 글로벌모터스 경영지원본부장·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씨 장녀 현지양=26일(일) 오전 11시30분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노치일(광주시체육회 본부장)·김미재(덕수학교 교사)씨 장녀 민희(병영초교 교사)양=26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 드메르웨딩홀 CN홀 2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김승남·최영아씨 장남 경민군, 서경원·김은영(담양 월산보건지소 담양)씨 장녀 정양=26일(일) 오전 11시30분 소풍컨벤션웨딩 7층 베일리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3, 032-624-7777, 010-3232-1768.
▲(故)백길선·박병희씨 아들 성동군, 신현영·정선미(담양군 수북면장)씨 딸 효정양=26일(일) 오후 2시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51(도전동 147-22), 062-228-0000, 010-6876-7883.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다온약국)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1월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메르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부음

▲서분송씨 별세, 박찬(전남일보 기자)씨 외조모상=발인 21일(화) 오전 7시30분 광양 육곡장례식장 특1분향소(061-793-4444).

담양군, 고속도로순찰대 대상 고향사랑기부 홍보

담양군은 “최근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를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담양 대표 담례품 전시, 기업사업 안내, 기부 참여 독려 캠페인 등이 함께 펼쳐졌다. 이 같은 노력으로 위중호 제5지구대장을 비

롯한 직원 80여명이 꾸준히 참여하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담양군 발전에 힘을 보탰다.

임순미 참여소통실장은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고속도로순찰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담양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목포하당청소년문화센터 ‘마약 예방’ 거리 캠페인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는 “최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원으로 하당 장미거리에서 청소년 정서 건강 증진과 마약 예방 홍보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안전홍보단 ‘마음빛’의 주도로 진행됐다.

‘마음빛’은 이번 활동 외에도 ▲청소년 마약 예방 및 정서 안전 교육 ▲‘마음알리 챌린지’ ▲행사 부스 운영 등 청소년 정서 건강과 마약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김민재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장은 “장



미의거리를 청소년 친화거리로 조성해 문화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혜선 기자